

마음으로 마음보기



해심밀경
지운역 | 연꽃호수퍼냄 | 2만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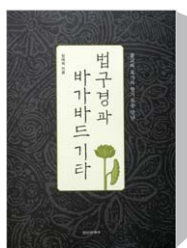
‘세상의 일체사물은 오직 인간의 분별 작용에 지나지 않는다.’

미혹의 마음이 벌어지는 이유와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는 유식사상(唯識思想)을 다루기 시작한 불교 유가학파의 근본 경전인 <해심밀경>이 직역됐다. 한국불교전서 원족의 <해심밀경소>를 판본으로 한글대장경 <해심밀경> 원족소와 조주역 <해심밀경>, 서대원역 <해심밀경>을 참조해 지운 스님(동화사 강주)이 직역한 번역서이다.

2004년부터 불교TV에서 <대승기신론>과 <해심밀경>을 강의해 온 스님은 대승의 수행과 단계를 체계화할 수 있는 단서로 현장 스님의 <해심밀경>과 신라시대의 유식학자인 원족 스님의 <해심밀경소>에 주목했다. 번역의 공덕이 후대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해심밀경>의 수행체계를 불교명상의 평하와 왜곡을 바로잡겠다는 의도다.

<해심밀경>은 미혹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말과 생각을 떠난 공극의 진리인 승의제를 제시한다. 마음 밖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에도 있다고 집착하는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유식만이 제시하는 수행법이다. 유식의 경계를 밝히고 유식의 관법과 행과(行果), 그리고 최고의 경지는 유무(有無)의 2가지 모습과 분별지를 떠나 있으며 아뢰야식의 나타남과 그 3가지 성품을 밝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았다. 근기가 다른 모든 수행자들이 다 같이 깨달음을 얻도록 은밀한 가르침을 풀이한 것으로 전해지는 <해심밀경>은 마음이 어떻게 마음을 볼 수 있는지 그 실상을 해아린다.

가연숙 기자



법구경과 바가바드기타 정태혁 지음 | 정신세계사 펴냄 | 2만5000원

갈등 뛰어넘는 지혜... “그대에게 있다”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되풀이 된 무수한 갈등이 역사라면 인류의 역사란 곧 인간의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면서 끝없는 지평선을 향해 떠나는 배와 같은 것이 아닐까?’

불교의 지혜서(知慧書) <법구경>과 힌두교 요가 수행자가 부르는 삼매의 성가(聖歌) <바가바드기타(Bhagavadgita, 지존의 노래)>(이하 기타)가 심도 깊은 차원의 합일을 모색한다. 수천 년에 걸쳐 인도의 정신문화로 꽃 피운 성전인 한 진리의 두 얼굴로 논한 삼라만상의 ‘즉(卽)’이다.

<법구경과 바가바드기타>는 1943년 월정사에서 지암 스님의 도제로 득도해 불교와 인도 철학을 수화하고 요가와 아우르베다를 수행 연구해 온 환운 정태혁 박사(88)의 참구(參究)가 이뤄낸 또 하나의 결실이다. 책을 세상에 내놓으며 ‘진리를 실하신 부처님께 진심으로 귀경례하고, 깊은 삼매 속에 노래한 고대인도 요가 행자들에게 경배’하는 저자의 경건함 속에서 부처님과 인도 성자의 참된 실상이 독

자와 수행자들에게 바로 자리 잡히길 바라는 저자의 마음을 엿본다.

저자는 깊은 성찰을 통한 믿음과 해탈의 길 위에서 두 경전을 조망한다. 위대한 종교의 가르침은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온 몸으로 깨달아 얻어지는 것임을 확고히 다져간다. 허무와 집착의 셋값에서 방향하는 구도자들에게 등대가 되고 자 하는 저자의 발원을 면면에 능숙해 깨달음을 향한 수행자의 갈증을 해소해 준다.

<법구경>은 총 23장 423송의 시구로, <기타>는 총 18장 700송의 시구로 구성된 불교와 힌두교의 복습을 서다. 절대적인 평정 속에서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법의 가르침이 <법구경>

이라면, <기타>는 절대적인 평정 속에서 마음을 일으키는 법으로 절대성 속의 상대성을 드러낸다.

진실의 문제에 관해 <법구경>과 <기타>는 어떤 대화를 나누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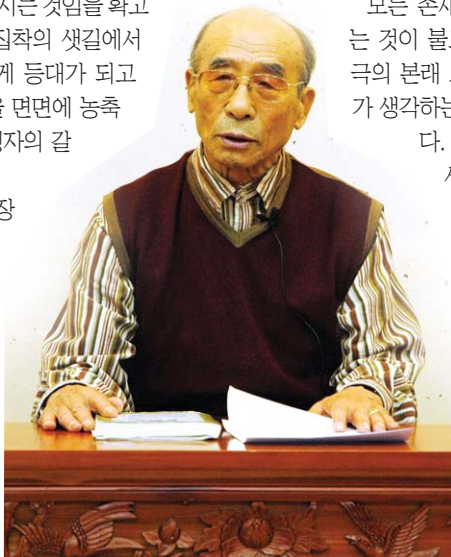
모든 존재가 연기이며 무상하다는 것이 불교의 진리다. 만물은 공극의 본래 모습을 나타낼 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 반면 <기타>는 삶 속에서 죽음을 보고 죽을 속에서 삶을 보라고 말한다. 드러남에서 드러나지 않음을 발견하는 일, 그것이 곧 진실을 보는 일이라는 것이다.

한편 붓다는 선정을 닦으면 누구나 성자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쳤다. 오직 너 자신을 믿고 법에 의지하라 말씀하셨다. 반면 <기타>는 나와 세계의 근본인 브라흐만을 알고, 그 마음을 브라흐만에게 돌려 전일(全一)하게 하는 요가의 관법을 통해 신과 내가 하나 되는 청정을 얻으라고 말한다. 불교는 자력으로 깨달음을 향해 가지만 법에 완전히 귀의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다. 요가는 타력으로 신을 구하는 듯 보이지만 스스로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해 신에 다가간다.

깨달음의 행복에 이르는 총 15부로 구성된 <법구경과 바가바드기타>는 자기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에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집착을 버리고 넘어설 때 비로소 이르는 마음의 평화가 이르는 지점을 마치 잔잔히 흐르는 강물처럼 얘기한다. 종교는 인간의 갈등 속에서 그것을 뛰어넘는 길을 보여줘야 한다고 율조된다. 새로운 차원의 길을 모색하는 지침, 그것이 바로 <법구경>과 <기타>의 공통 주제다.

가연숙 기자 onflower@buddhapia.com



익숙한 것들도 낯설게 보자



사진과 카메라로 읽고 생각하기
대전문화예술교육연구회 펴냄 | 비매품

인간의 ‘식(識)’은 영화 필름에 비유된다. 필름 한 컷이 지닌 찰나의 정질은 불교의 순간 개념과 다르지 않다. 허공을 날아오르는 새의 날개 짓 1초속에는 24컷(Cu)의 찰나가 숨은 셈이다. <금강경>에서 있는 그대로 본다(過去心不可得 現在心不可得)는 실상론과 사진과 카메라가 담아낸 어둠상자 속의 잠상은 그 속성에서 많이 닮았다.

이런 측면에서 <사진과 카메라로 읽고 생각하기>는 학교문화 예술교육의 중요한 방법론으로 학습자가 적극적인 문화 생산자의 주체가 되는 길을 제안한다. 매체가 지닌 인문학적 사유 방식의 깊이를 심화하며 주어진 사회성이 아닌 자신이 직접 바라본 세계를 스스로 개척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기획자인 임민수 사진가는 사진과 카메라로 읽고 생각한다는 것이 ‘사유 작용의 실현’이라고 설명한다. 사물을 사유하는 인식 주체의 수동성이 훨씬 풍요로운 창조적 사유를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한다. 현실을 익숙함에서 차별해 낯설게 보고 느끼도록 하는 장이 되는 사진과 카메라는 자아를 성찰하는 기반인 것이다. 이 책은 ‘2008 문화예술교육 선도학교 사진분야 운영지원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최로 발간된 결과 자료집이다.

가연숙 기자

조선시대 상류층을 재해석하다



세종대왕 기문의 500년 아량과 교육
이상주 지음 | 어문학사 펴냄 | 1만4000원

리더십과 인간성으로 회자되는 세종대왕. 조선 최정에 엘리트 집단, 조선상류층의 역사이자 술회되었던 세종대왕 직계 후손의 500년 역사가 밝혀진다. <세종대왕 기문의 500년 아량과 교육>은 20여 년 동안 신문기자로 활동해온 저자가 조선 시대 상류층을 재해석한 조선왕조사다.

파란 만장한 문종사 가운데 세종대왕의 여인 신빈 김 씨가 비구니였다는 사실에 주목해 본다. 임금 세종과 신분을 뛰어넘는 세기의 로맨스를 펼친 그는 세종 사후에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됐다. 역대 왕들은 환속해 편히 살 것 등을 명했지만 세종을 잊지 못하고 “세상일을 잊고 대왕을 추모하며 살게 해 달라”며 평생 절에서 살았다. 서울 종로구 육인동에 있던 자수궁(德壽宮)은 현재 헐리고 없으나 한때 5000여 비구니가 거주한 최대의 승방으로 전해진다.

한 가문의 상처와 구부러진 내력이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저자는 공권, 공치 않은 우리의 역사라고 말한다. 분발을 접은 계승하고 안타까운 젊은 경계로 삼는 것이 요즘을 사는 이들의 몫 것이라고 당부한다. 1만 9000명의 세종대왕 후손들이 만들어낸 밀성군 가문의 이야기가 조선의 역사로 면밀히 펼쳐진다.

가연숙 기자

‘무자’ 화두를 참구해야 깨달아



고려에 남긴 휴휴암의 불빛: 몽산덕이
허흥식 지음 | 창비 펴냄 | 2만6000원

간화선이 풍미하던 13세기 고려 불교, 그 안에 원나라 임제종의 고승 ‘몽산덕이(蒙山德異, 1231~1308) 스님’이 있다. 그의 사상과 저술 활동은 고려 말과 조선 전기에 불교를 지키기 위한 전거였다. 성리학이 주도한 조선에서 불교의 기반이 된 고려 조계종과 함께 한 스님의 발자취가 한국 사상사에 미친 지대한 공헌으로 밝혀진다.

<고려에 남긴 휴휴암의 불빛>은 한국 역사학계에서 고려사와 중세사상사의 권위자로 손꼽히는 허흥식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집필한 고려불교 연구서다. 몽산덕이 스님의 행적을 따라 중원과 고려의 불교가 맺은 관계를 규명하고 동아시아 사상교류의 재정립을 역설한다.

중국 강남지방에서 활약한 스님은 모든 이론적 가르침을 부정하고 오로지 ‘무자(無字)’ 화두를 참구하는 것만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흥미로운 점은 태고보우 스님의 수행 원류를 몽산덕이 스님의 행적을 통한 임제종의 법맥에서 찾는다라는 것이다.

스님의 선교일치(禪教一致)와 삼교일치(三教一致)론 등 동아시아에서 자생한 유교와 도교에 대한 화두는 오늘날 종교와 사상의 보편성을 시사한다.

가연숙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답답하면 물이라	법륜	정토
2	아름다운 마무리	법정	문학의 숲
3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4	스님 마음이 불편해요	법륜	정토
5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월호	불광출판사
6	인과경	현담	선
7	만가지 꽃이 피고 만가지 열매 익어	대형	한미출판사
8	스님도 군대 가나요	지형	클리어마인드
9	행복한 사람들	김천	하얀연꽃
10	아벌로기체수와라, 당신은 나의 연인	월호	운주사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www.buddhabook.co.kr

인터넷 불교서점 **붓다북** 02)953-7181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테트형강판, 사철(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칼라지붕공사

전자식 2종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합

움직이거나
던지면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 100%

◆ 돌발적인 정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043-647-2378, 011-467-1472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STT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통증 및 마비 종합 치료편 탄생!!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우는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향통, 구안와사, 안경허수, 목 디스크, 오십견 (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목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추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이외에 600여종의 병원에 치료가 불가능하였던 중풍 수술.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75,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207176-51-204175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일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합, 선착순 8명)
- 참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설법 연수생 모집

교육 내용

1. 대인불안 공포증의 원인분석과 대안
2. 단전호흡 & 발성훈련의 실기훈련
3. 설법의 개념과 부처님의 5종 설법
4. 설법자료 및 훈련자료에 의한 연수
5. 음성언어와 몸짓언어의 실기훈련
6. 표현상의 수사 및 논리의 수사
7. 경우에 따라서 ‘최면(催眠)’도 지도함

회원모집 & 특징

- ◆ 본인이 원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음
- ◆ 맞춤형 개인지도 (2시간 기준, 8과제)
- ◆ 동영상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지도교수 又佛 김철희 박사 직접지도

- 한국설법연수원 원장
-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 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법인 이사장
- 대한최면심리학회 부회장 / 대통령 표창(교육 부문)
- 美 로드랜드 의과대학에서 최면전문가 자격증취득 / 최면지도사
- 대한응변 중앙회 회장 역임

문의 및 신청

TEL 02)747-1567
H-P 011-248-1567
E-mail : kch3296@hanmail.net

한국설법연수원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층)
(지하철 1, 3, 5호선 종로 3가역 2번출구)